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4135.00	↑ 코스닥	935.00
	(-8.55)		(+3.65)
↑ 금리	3.095	↓ 환율	1470.55
	(+0.011)		(-1.75)

美서 AI 칩 대량 수주 수율·고객·인력 확대 파운드리 경쟁력 상승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인공지능(AI) 칩 대량 수주와 안정적인 수율을 통해 활기를 찾고 있다. 그간 테일러 펌 가동 지연으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력 보강 등 조직 정비까지 병행하며 우려를 잠재시키는 모습이다.

1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리는 미국 AI 스타트업 '차블라이트 스케일러블 인텔리전스'와 광학 처리장치(OPU) 칩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개발 4nm 공정으로 제작 수율 안정화에 생산안정성 확보 테일러 펌 가동 준비도 막바지 인력충원 등 준비태세 나사

해당 칩은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4nm(나노미터·10억 분의 1m) 공정으로 제작될 전망이다. OPU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구조 등을 하나의 칩에 담은 차세대 AI 반도체 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의 선주문 물량만 10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4nm 전공정 양산 과정에서 난제를 겪어온 삼성전자가 이번 수주를 계기로 고객사 신뢰를 되찾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 파운드리 수율도 60%~70% 사이로 안정화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생산 안정성도 확보되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테슬라의 AI5 자율주행 칩을 수주하며 대형 고객사 확보와 공정 안정화 작업이 맞물려 생산 체력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테일러 펌 가동 준비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테일러 펌 공정률은 93.6%에 달하며 내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은 지난 7일 파운드리 고객 엔지니어링(CE)분야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직책은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의 공정 기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사업 개발부터 신제품 출시(NPI)/양산 전 과정에서 내부 조직과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력 확충이 TSMC의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찾는 고객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따른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 운영 비용 향상으로 인해 오는 2026년부터 해당 공장의 공정 가격을 최대 30%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실적 개선의 핵심 요소는 내년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생산능력이 꼽힌다. 파운드리가 HBM4의 핵심 구성품인 베이스다이를 4nm 공정으로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2나노 공정의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600'이 곧 양산에 들어가 내년 초 출시를 앞둔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예정이다. 자사 제품을 직접 수주하는 동시에 2나노 공정 숙련도를 올린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리는 그동안 낮은 가동률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최근 선단공정 중심으로 신규 주문이 늘고 있다"라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파운드리 사업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는 내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산업 세계 2강 도약 생태계 조성”

李 대통령, AI시대 반도체 전략 “재생에너지 풍부 남쪽에 눈길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했다. 특히 이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 균형성장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을 끌고올 육성함으로써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에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개발에 1조2676억원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 대전제다. 파이를 키워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태계가 튼튼해야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며 “전후방 산업, 소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주면 좋겠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선의가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라든지 특히 규제 분야,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인 호남 지역을 거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책임자들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 미래기획수석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사임… 개인정보 유출 책임

“국민께 실망드린 점 매우 송구” 쿠팡, 美 본사 임원 임시대표 선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했다. 쿠팡은 미국 본사 임원을 임시 대표로 선임하며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을 위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쿠팡은 10일 박대준 대표이사(사진)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능장 대응 및 책임 회피 논란이 거세지자, 경영진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의 사임에 따라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는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최고경영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신임 임시 대표는 미국 본사의 핵심 임원으로서,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로저스 대표는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흔들리는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의혹 겨냥…“여야 관계 없이 수사”
▲김민석 총리 “쿠팡 문제 심각…법 위반 엄정 조치”

/사진 뉴시스

▲위성락 안보실장, 다음주 방미…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국방부, 러시아·중국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 항의

▲국힘 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尹 계엄 후 불행 극복해야”
▲법원 “태영호 4·3 왜곡 발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